

단편소설

활짝 피여라



황 영 예

1

(어째서 오지 않을까?)

선희는 등이 달아오르기 시작하였다.

초급중학교 3학년생인 아들 용위가 어둡스레해진 지 여러 시간이 지났는데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육벌일 해도 단단히 했으니...

오후에 있는 일이 선희의 마음을 틀어잡고 놓을 줄 몰랐다...

《용위 어머니, 좀 만났으면 합니다.》

용위의 담임선생의 호출전화였다. 우리 용위가 또 무슨 일을...

선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선희의 발걸음은 친근 만근으로 무거웠다. 자기로서는 더는 어쩔수 없다는 투의 담임선생의 말이 귀를 붙잡고 놓지 않고 있었다.

《전번 컴퓨터소조때에도 제멋대로 행동해서 그렇게 됐는데 수확소조에 들어서까지도 또 그러면 어쩌자는건지...》

저도 이번만은 양보하지 말자고 학생의 취미와 재능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위에 대해선 두손 바짝 들었답니다. 교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학생은 손탁이 무한정 센 남자선생들이라야 다룰수 있겠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수재형이라 할수 있는 가까운 애인데...

수학이면 수학, 컴퓨터면 컴퓨터... 무슨 과목이든 막히는것이 없는데 소총명을 부립니다. 특별한 리유나 구실도 없이 소조에 빠지는것은 보편적인 현상이고 소조에 와서도 항상 놀음식이라고 소조교원들마다 말한답니다.

용원 자존심이 남달리 강한 애인데 전교앞에 여러번 섰었으면 개진이 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점점 그 모양일가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애입니다. 글썄 어젠 소조에들까지 끌고나가선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끝내 한 학생은 다리를

다쳐 학교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당분간은 그를 아무 소조에도 넣지 말자는것입니다. 용위 어머니 의견은 어떤지?...》

무슨 대답을 할수 있으랴.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비약하는 때에 당분간이라니 당치 않은 일이라고 항변하고싶었지만...

일찌감치 저녁을 해놓고 기다려도 옥버르는 아들은 들어올줄 몰랐다.

벨통머리 사남다는것은 선희도 인정했거니와 큰 격정거리인것만은 사실이였다. 갓마흔에 첫 버선이 라고 결혼후 10년만에 본 자식이다보니 성미가 대쪽같은 선희도 저도 모르게 목숨 뱄을 키워준것같았다. 머리에 들쳐난듯이 늘 안전모를 쓰고다니며 집을 러판삼는 남편도 어쩌다 한번씩 안아보는 애를 그저 굶다고만 했으니...

달아오른 가슴도 식힐점 선희는 집을 나섰다. 낮에는 쟁글쟁글한 봄별이 아래목처럼 따스했건만 밤엔 따스한 봄별에 자리를 내어주기 싫은 겨울의 잔여가 햇빛이 사그라지기 바쁘게 심술을 부리며 야단치고있었다. 잠간만에 몸이 오싹해났다. 언제인가 아이를 혼내려다가 오히려 제견에서 혼쫓이 났던 때가 불쑥 떠올랐다.

학교에서 용위가 수업규률을 위반했다고 집으로 통보가 왔다. 그때 그는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서 난생처음 진땀을 뺐었다. 40여년을 살아오면서 지금껏 받아본적이 없는 심한 모욕을 당한 수치를 누를길 없었던 선희는 용위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바쁘게 당장 나가서 선생님께 잘못을 빌기 전에는 집에 들어올 생각을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더니 웬걸... 눈보라 사나운 그 추운 겨울날에 차디찬 뒤골방에 들어가 손발을 얼구면서도 몇시간동안 자기를 찾아서 동네방네 헤매는 엄마를 지긋게 바라보기만 한 독한 애였다.

다른 사람들에게겐 나쁜 애로밖에 안 보이겠지만 선희는 아들을 너무도 잘 알았다. 걸보기엔 못된

장난군이었지만 인정만은 무척 무른 애였다.

소학교 4학년때인가 낮에 비가 내릴것 같아 가방에 비옷을 넣어보았는데 그 폭포같은 비줄기를 흠뻑 들쭉가지고 물에 빠진 병아리신세가 되어 집에 들어서는 용위를 보니 뱀부터 울커덕 뺨어져올랐다.

(또 잃어버렸구나.)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이었다. 당장 달려갈 자세로 아들에게 무섭게 따지고 드니 그녀석이 하는 소리가 《어머니도 참, 동무들이 다 비를 맞는데 내가 어떻게 비옷을 쓰나요? 집이 제일 먼 동무에게 입혀 보았어요.》하는 것이었다. 용위가 어릴 때부터 장난을 좋아한것은 사실인 것 같다. 먹을것은 양보해도 장난감만은 녀자애들의 손에 할퀴우면서도 절대로 내놓지 않았다는것은 지금까지도 보육원들이 이야기하는것이다. 그렇게 제 살점처럼 여기다가도 《집에 돌아가자요.》 하면 선참으로 바치곤 하였다는것까지도 덧붙여서…

남의 집에서 가지고 놀던 장난감은 아무리 희귀한것이라도 돌아올 때에는 꼭 제자리에 놓고 오군한다고 동네사람들이 너무도 머리를 쓰다듬어주어서 머리칼이 다 닳아져버릴 정도였다. 어렸을 땐 그렇게도 자랑스럽던 애가 지금은…

남의 뒤소리를 듣지 않으려거든 자기의 처신부터 잘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외우는 엄마가 이번에도 그냥 두어둘리었다는 생각에 아들은 여기 어디에선가 엄마를 뻔히 바라보면서도 귀를 열구고있을 것이었다. 귀한 자식일수록 매로 키우겠다는 속담이 지금 이 시각처럼 빠져리게 가슴을 파고든적은 없었다.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동구밖에는 고즈넉한 정적만이 깃을 펴고있었다. 소조에 갔다가 늦게 돌아온다고 지청구를 늘어놓던 때가 그리워졌다. 불쑥 아들을 배척해버린 소조교원들에 대한 원망감이 비누거품처럼 부그그 끓어오른다. 우리 용원 그렇게 내동맹이쳐질 버럭돌이 아니야…

선희의 가슴은 짓이겨진 상처에 소금이 뿌려진듯 쓰러났다. 문득 며칠전에 인편으로 보내온 애아버지의 편지구절이 뇌리에 평곳 비껴들었다.

《…더구나 용위문제때문에 집에 다녀오려했는데… 아무리 고품위광석이라도 켈수 없는 광석은 버럭만 못하고.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인 리론에만 귀착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오. 내 조국의 밝은 래일과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겠소. 내 나라앞에 스스로 걸머진 이 과제를 꼭 해내고 집으로 갈테니 용위를 부탁하오. 당신이야 설계가인데 자식 하나의 앞날설계가 어련할라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우리 당의 관심이 우리의 걱정과는 대비도 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마오. 나라에서 용위를 우리가 바라는것보다 더 훌륭히 키울테니…》

고품위광석! 남편이 말하는 켈수 없는 《고품위광석》이 과연 우리 용위는 아닐가. 그렇다면 남편의 기대를 막연하게 만드는 나는…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는 일이었다.

(용위야, 너는… 어쩌면 좋니?)

아들을 결코 《버럭돌》로 내버려둘수 없는 선희는 보이지 않는 용위를 붙안고 몸부림쳤다. 사실 남편의 기대는 공연한것이 아니었다.

선희는 어쩌면 무용지물로 될수도 있는 용위의 앞날에 대한 설계를 그의 아장걸음마시절에 이미 무르익혀놓았다. 돌이 되던 때에 벌써 아버지가 책을 보면 자기도 펼쳐들고 《어어어어…》 읽는 시늉을 하여 온 집안에 웃음보파리와 함께 커다란 기대를 선사한 아들, 말도 제대로 번지지 못하면서도 구구표를 줄줄 내리여우 동네사람들의 한량없는 축복을 아름별게 받아안으며 가정에 행복의 무지개를 수놓던 아들이었다. 지금도 수학이나 컴퓨터, 축구는 학교적으로 손꼽힌다고 하지만 그 몸쓸놈의 장난기가 높이 솟구쳤던 사람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있으니…

너무도 안타까와 몇번이나 용위를 붙들고앉아 하소연을 했는지 모른다. 그때마다 아들에의 대답은 선희를 아연케 했다.

《사연은 알아보지도 않고 욱부터 하니 그러지요?!》

오늘은 또? 허구픈 웃음이 절로 새어나갔다.

갑자기 등뒤에서 쇠— 하며 선희를 단숨에 삼켜버릴듯 한 끝개바람이 옥 밀려내려왔다. 불현듯 떠오르는 어린시절의 일!…

선희에게는 성격이 버들가지같이 차분한 오빠가 있었다. 《팔랭이》라고 불리우던 선희와 영 판판이었던 그가 지קות은 장난꾸러기였다는것은 아직까지 남들은 알지도 못하며 또 인정하려고도 안할것이다. 허나 지금은 나라의 중요단위에서 없어서는 안될 대들보로 떠받들리우고있다.

선희가 열서넛났을가 한 때의 일이다. 종일 출출히 내리던 비는 밤에도 멎지 않고 부실부실 내리고 있었다. 어릴적엔 왜 그리도 밤이 싫은지…

자기를 찾는 소리에 선희는 얼른 밖으로 뛰어나갔다.

《엄마야—》 심장이 통채로 떨어지는듯 한 무서움에 기겁한 선희는 미처 돌아서지도 못한채 벌렁 넘어지고말았다. 입이 하마입같은 도깨비가 시퍼런 눈알을 번뜩이며 선희를 향해 육박해왔던것이다.

《왜 그러니?》

밖으로 나가기 바쁘게 기절초풍한 선희와 거의 동시에 화들짝 놀라난 어머니가 새된 고향을 맞길려했다.

《저… 저기…》 선희의 혀도 갑자기 몽드러진듯 간신히 새어나가는 소리는 이 한마디뿐…

선생님이 이 세상엔 도깨비가 없다고 했는데 크고 무서운 왕도깨비가 선희를 호몰떡 삼킬듯이 다가들었던것이다. 선희는 좀체로 얼굴을 들수 없었다.

《하하하…》 난데없는 폭소가 터져올랐다. 저건 분명 나를 찾던 오빠의 웃음소리인데…

여러사람이 여기에 합세했다.

별일 다 많겠네. 도깨비보고 웃다니…

한동안이나 지났는데도 팔자루가 탁 더진것 같은 폭소는 종시 사그라질줄 몰랐다. 한참만에야 머리

를 드는데 겨울에만 쓸모있는 눈가래에 백살난 할아버지눈썹같이 희끄무레한 나무쫓각으로 눈, 코, 입, 귀를 만들어붙인 《도깨비》가 오빠의 손에 들려있었다. 자기를 놀리려고 오빠가 일부러 찾았다는 것을 그때야야 알게 되었을 때 알뜰기란…

그날에야 선희는 비가 많이 오는 날 밤마다 버드나무숲속에서 번쩍이는 린팡이 자기를 크게 놀래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후 선희는 재미나게 놀다가도 어둠이 깃드는 때면 《도깨비》가 온다고 슬그머니 콩무리를 빼려는 아이들에게 도깨비는 이 세상에 없다고 큰소리를 치곤 하였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린팡이 번쩍이는 버들숲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밤에도 곧잘 다니게 되었다. 이것만 보아도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체판에 어떤 생각이 번쩍 튀기는 것이 있어서 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주판인지는 모르겠으나 장난으로 빚어진 것이 아이들이라 해도 과언은 아닌듯싶다. 길을 가다가도 장난에 넋을 뻗긴 낮모르는 아이들에게도 리유를 물으면 다 그럴듯한 까닭이 있었다. 그때부터 선희는 욕지거리를 만드는 아이들의 험한 장난에 적지 않은 눈길을 돌리곤 한다. 장난이라는 허울속에 무심히 넘기지 못할 무엇인가가 꼭 있었던 것이다.

선희는 용위가 다름바 없다고 생각되었다. 선생님들에게는 어디까지나 구실에 불과하겠지만 소조에 늦는 것도 빠지는 것도 다 피치 못할 원인이 있을터인데 차근차근 일깨워주려고 안하니 아이는 점점 생기를 잃게 되고 쟁쟁하던 실력도 급강하를 면치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 종당에 용위에게 차례질 곁과를 생각만 해도 오한이 났다.

이때 동구밖에서 개짖는 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려왔다. 행여나 하는 선희의 눈길이 언덕아래로 옮겨졌다.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기라도 하듯 명량한 웃음소리가 호젓한 밤하늘에 정가로이 울려 퍼졌다.

용위다! 내 아들이다!

누구와 함께 오는 모양인지 용위의 사기충천한 목소리에 정답게 응수하는 나직한 말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이제야 오는구나!)

가슴이 알싸해지며 무직하니 몽그러졌던 것이 일시에 풀렸는가 하늘에 치닿을듯 한 반가움이 가슴속에서 그득하니 교여올랐다.

《용위야—》

《예—》

되받은 목소리가 목금소리도 울고 가겠다. 재깅재깅 얘기하는 소리가 여느때보다 더 대견스레 들려왔다. 허나 그것도 한순간… 또다시 밀려온다. 깊이를 알수 없는 두려운 근심의 장막이 애써 마련되었던 가슴속의 환희를 피를 말리듯 줄금줄금 마셔버리며…

《어머니!》

그제야 용위와 함께 온, 전지불에 어렴풋이 비쳐진 날씬한 처녀에게 눈길이 갔다. 아무리 뜯어봐

야는 사람같지 않은데…

《야, 어머니, 문학소조선생님이예요.》

누구인가 묻는듯 한 선희의 눈빛이 돌려지기 전에 그것도 모르나? 선생님이지 하는듯 한 불평이 감도는 응석기어린 용위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늦은 인사를 했다.

《미처… 알아보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용위와…》

귀엽다 할만큼 생글생글 웃음을 상긋거리는 처녀교원과 선생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인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불만으로 불이 부은 용위를 번갈아보는 선희는 어서 영문을 알고싶었다. 어떻게 담임도 아닌 낮이 설은 문학소조선생님과 함께 왔는지…

2

《어머닌 뭐예요?》

집안에 들어서자 늘어졌던 고무줄이 툭 끊어져 제자리로 돌아갈 때처럼 밖을 향해 달려나가며 용위가 방안에 떨군 시한탄같은 이 말에 선희는 한겨울에 찬물을 훌쩍 들었을 때처럼 그 자리에 툭 굳어져버렸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알지 못할 설음이 장마철의 홍수처럼 사납게 가슴에 쓸어들었다. 분명히 선생님에게 달려나갔을 아들이 다시는 자기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듯도 싶은 서글픔이 선희의 가슴속을 암팡지게 빗질하며 돌아갔다. 본의아니게 어디에 가서 뺨맞고 어디에 가서 주먹을 내민다는 식의 행동을 해야만 했던 내 마음은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네가 이 엄마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보이지 않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점도룩 서있는 선희의 흐린 하늘같이 어둠던 마음이 어찌선지 차츰 맑아지기 시작하였다. 답답한 가슴 한귀퉁이를 살그머니 들추고 발뻘발뻘 새어드는 생각…

용위가 그 선생을 그렇게까지 따르다니… 그것은 그 선생이 분명 용위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오랜 선생들도 그 묘리를 다는 터득할수 없었던 용위의 마음의 열쇠를 이제 온지 한달도 안되는 처녀선생이?…

하기는 그 선생을 마주하는 순간 선희자신도 대번에 마음이 그에게 끌려들었다. 결불안이라고 체소한 그 선생은 자태에서부터 현숙한 지성도가 느껴졌다. 넓지 않은 네모반듯한 이마며 깊이를 알수 없는 호수같이 그윽한 눈, 어깨너머로 끈게 내려진 까만 머리칼, 몸매의 우아함을 돋구어주는 연회색복가울의투를 입은 단정한 그의 모습에 선희는 매혹되었다. 그 매혹이 커가는데 가슴속의 울분은 왜 곁따라 일어나는지…

《용위 어머니, 용위에게 남다른 문학적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위를 우리 문학소조에 받았으면 하는데 어머니의 의향은 어떠하십니까…》

《예?… 아니요.》 선희의 단마디의 거절에서는 랭소가 물씬 풍겼다. 어은금소리같이 은은한 선생

의 선의에 두부모베는듯 한 비수같은 감때사나운 말이 어떻게 단번에 솟구쳤던지...

《우리 용위를 더는 건드릴 생각을 말아줘요, 제발! 아이가 더이상 물림당하는걸 보고싶지 않아요. 며칠이나 갈걸 가지구...》

선희의 팽담에 선생은 숨소리마저 잃은듯 했다. 그 자리에 돌아사람이 되어 박혀버린듯 까딱없는 그에게 꼭 했어야 할 인사말도 변변히 없이 선희는 다짜고짜 용위의 손목을 쥐고 돌아섰던것이다. 어둠속이 아니었다면 아마 구운 가재같이 빨개졌을 그의 얼굴을 대하기가 선희로서도 멧적었을것이다.

종일 가슴속에서 뒤굴린 궁여지책이 이것이었던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진지하게 들어주던 선생이 고마왔다. 남 다 자는 한밤중에 아들을 데리고 온 그에게 고맙다는 말, 잘 가라는 인사말 한마디 따끈히 해주지 못한 자책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선희의 마음을 송곳질하듯 찢러댔다. 더구나 용위가 저렇듯 따르는 선생이어서...

(에이, 난 왜 이렇게 즉흥을 고치지 못할가...)

일을 그러쳐놓고서야 아이쿠! 하는 선희였던것이다. 항시 주의하느라고 하는데도 그것만은, 부모들이 피와 살과 함께 선사해준 뾰족한 그 성격만은 야속하게도 자꾸 솟구치군 하여 선희로 하여금 머리를 싸쥐게 하군 하였다.

뛰쳐나간 용위가 한참이나 되었어도 들어오지 않으니 선희는 조바심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사연도 알아보지 않고 너무 경솔했다는 생각이 자꾸만 머리를 쳐든다. 이때 방문이 벌컥 열리었다. 안도의 숨이 나갔다.

선희는 말그레하게 상기된 두볼에 입을 꼭 다물고 문턱을 넘어서는 아들을 얼추 보고나서 열린 밥상에 썩었던 보자기를 끌어내렸다.

《어서 밥이나 먹자.》

그런데 아들은 썩 지나친다. 선희는 아연해졌다. 타고난듯이 언제나 방글거리던 두눈에 장마칠 먹장구름같은 수심이 질게 서린 그를 보니 선희의 마음도 여러지는것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운것만 뻗아달았다고 갓난아이때부터 사람들의 찬사를 젖 먹듯 받아온 용위는 척 보는 사람들의 첫말이 《눈보래!》 할만큼 처녀에들처럼 곱았다. 쌍까풀진 영채도는 두눈, 그를 갓 낳았을 때 외할머니가 열성적으로 그어준 보람이런듯 반달같이 휘여진 류달리 검은 눈썹, 해말쭉한 살결의 갈썹한 얼굴에 간단치 않은 인상을 첫눈에 느끼게 하는 손가락으로 돌돌 말아놓은듯 한 고수머리까지 어울려 용위는 선희의 마음을 언제나 즐겁게 해주었었다. 언제나 나가살다싶이 하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명랑한 그가 있어 한결 덜어졌었는데... 여느때 같으면 용위의 불순한 이런 행동도, 선희의 아랑있는 참울성도 이렇듯 발휘하지 못했으련만... 《버릇없이》라는 지칭구를 귀방울처럼 달고다니던 애갈지 않게 《먹고 싶지 않아요.》하는 덜퉁한 소리만 남기고 웃방으

로 올라가 사이문까지 꼭 닫고는 언제까지라도 기척이 없을 아들이 이쯤되고보면 오늘 일에서 받은 심리적타격이 이만저만 아닌것 같았다. 이것이 오늘 담임선생이 말하던 그 《용위의 개진》 예고령이 아닐가. 장마철같이 흐리터분하던 선희의 마음이 구름장을 헤치고나온 햇빛을 받은듯 안온해지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그 선생님과 함께 오게 됐니?》

여느때 같으면 집에 오자마자 뿔아떨어졌을테지만 자정이 지났는데도 책상에 마주앉아 부지런히 펜을 놀리고있던 용위가 좀전부터 몹시 알고싶어하면서도 싣듯 묻지 못했던 어머니의 궁금증을 말끔히 가셔주는것이였다...

전날 용위네 학급애들은 다른 반 애들과 점심참에 축구경기를 했었다. 2반이 걸어온 도전경기였다. 아슬아슬하게 너 한점 나 한점 깎아지른 벼랑툭아오르듯 하던 경기는 저편선수들의 마지막별차기로 하여 용위네가 그 애들의 담당구역청소까지 해주지 않으면 안되였었다. 분을 삭이지 못해 애꿎은 공만 팀판에 마구 짓궂어대는데 발에 눈이 달렸다 할 정도로 신통하던 《명사수》 솜씨도 패배라는 수치를 타고 쥐구멍에 들어간 모양인지 용위의 발에 매여 꺾꽂도 못하던 《5》자가 요리개울 조리개울 몸빼기까지 하니 가뜩이나 헤픈 눈물은 이때라고 앞을 아주 가리워놓기까지 했다. 녀자에들처럼 영영 소리를 질러대며 울어도 씨원치 않을 분통함을 삭이지 못해 놀란 데돼지 요동치듯 하는 그에게 약이 있다면 오직 하나 《이기는것!》 뿐이였다. 인정 많고 다정다감하던 학급장의 보기 드문 이 《병》 치료에 특효가 무엇인지 알고있는 동무들은...

그길로 성난 파도마냥 달려갔건만 동무들은 소조에 다 가고 없었다. 덜렁덜렁 돌아와 소조에 몸은 잠겼건만 도전에 팔리는 정신은 용위의 마음을 들뜨게 하였다. 억지로 한시간 참아낸 용위가 약속이나 한듯이 모여온 학급동무들과 슬그머니 사리려는데 《형님, 형님.》 하며 도꼬마리처럼 바지가랭이에 찰찰 물어다니는 소조애들이 책상에 교과서요, 참고서요 펼쳐놓은채로 따라나서다보니 오늘 이렇게 어머니까지 불리워오게 되고 용위는 소조선생님에게서 얼마동안인지 모를 경고처벌을 받게 되였다. 수업이 끝난 후 다른 애들은 다 자기 소조에 찾아가는데 용위만은 멍하니 축구소조아이들이 공차기하는 창밖만 바라보고있었다. 여느때 같으면 《오것두 못해?》 하며 위세를 둔구겠지만 그 축구때문에 이렇게 서리맛은 호박잎신세가 되고보니 영감훈이 없었다.

(아무쪼록 이기고볼판이지!)

점심참에 다시 벌어진 도전경기에서 밤새 훈련한 표창이런듯 1:5라는 비약적인 승부로 상대편을 보기 좋게 이긴 기쁨에 동무들이 제각기 소조로 흩어져갈 때 찌릿이 감돌던 쫓겨났다는 감정은 바람이 지나가버린듯 했다.

집에 가서 오락을 할 생각으로 움쪽 일어서는데

마침 창밖으로 지원이가 문학선생결에 딱 붙어 지나가고있었다. 불쑥 일종의 야심이 저도 모르게 꿈틀거려났다.

《야, 지원이!》

무슨 정신에 막 달려가 찾았는지 용위자신도 얼떠름해졌다. 여라문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선생님까지 웬일인가 보시니 아무리 푸접좋은 용위로서도 허가 돌덩이가 된듯 굳어지는 수밖에...

《용위학생, 어서 와요!》

기다렸던듯 선생님이 반겨주시지 않았다면...

다른 애들이 보니 시뚝해서 달려는 값건만 용위는 밀려드는 의문을 풀수 없었다. 문학선생이 어떻게 나를 부르실까...

머리에 뱅뱅 감돌던 물음표들은 선생님이 그의 손목을 꼭 잡아 옆에 세우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실 때부터 용위의 마음을 선생님에게 칭칭 동여매놓았다. 범상하게 보아오던 고향산천이 오늘처럼 용위의 마음에 아름답게 새겨지기는 처음이었다. 학교길을 소학교시절부터 이날껏 걸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고향땅에 대한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 숭엄한 감정이 고향땅에 깃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이야기를 눈물을 머금고 차근차근 들려주시는 선생님의 실재한 사실에 기초한 이야기를 타고 가슴에 새록새록 안겨드느것이였다. 소조선생님의 생동하고 섬세한 자연묘사와 풍물묘사에 푹 빠져들고보니 레사롭게만 보이던 산 좋고 물 맑은 산촌풍경이 진짜 아름다움을 지금껏 감추고있다가 그제야 금시 펼쳐놓은듯싶었다. 정말 재미있었다.

모록모록 망울진 돌배꽃이 하이얀 햇숨을 뭉그려 둘러붙인듯 하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다른 소조에 있을 땐 굶뽕이걸음을 하던 시간이 오늘은 살을 타고 나는듯 했다. 타지 않는 바줄이 있다면 서산으로 기우는 해를 꼭 비끄러매놓고싶었다. 해가 지고 무섭증을 일으키는 어둠이 꾸역꾸역 밀려드는데도 시간을 모르는 아이들같이 계속 쓰고 지우며 배심이 뜬뜬해있다 했더니 저녁마다 선생님이 꼭꼭 바래워주시니...

어둠을 뚫으며 선생님은 우주에 대해, 우리가 쉰 올린 인공지구위성에 대해, 흔히 우리가 생활에서 맞다들리게 되는 자연현상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였다. 그제서야 용위는 아이들이 어째서 집에 가는것을 서둘지 않는지, 지원이가 어째서 요즘 어째를 좇고 다니는지 알게 되었다. 소조에서 제일 먼저 지원이의 집이 용위네 아래동네였지만 선생님은 용위도 집앞까지 깎듯이 바래주신것이였다...

《정말 괜찮은 선생이로구나...거 혹시 전번에 네가 말하던 그...》

선희는 대뜸 짚이는것이 있었다.

《예, 맞아요. 고양이!》

며칠전에 있던 일이었다. 그날 아침따라 별스레 엄지고양이가 《야옹,야옹.》 새된 소리를 지르면서 웃방, 아래방을 정신나가게 왔다갔다하다가는

출근준비를 서두르는 선희의 발목에 보르르한 털을 맞비비며 돌아갔다. 그러다가는 또다시 《야옹,야옹...》 하며 몹시 불안해하는 눈빛이었다.

(이 고양이가 왜 그래?)

두루 살펴보니 요구석 저구석 살살 기어다니며 재롱을 부리던 새끼야옹이 알락이가 보이지 않았다. 참 조화다 하고 생각하며 애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저녁퇴근길에 나섰는데 얼마쯤앞에서 용위와 지원이가 들까불며 가고있었다. 애들의 재잘대는 소리가 선희의 귀에도 들려왔다.

《야, 난 정말 혼났다야... 다 너때문이야!》

《야, 말말어. 거야 네 가방에서 고양이가 튀어나와서 그렇게 된거지 뭐 나때문인가?》

《뵈하러 웃으래?》

중주먹을 쳐들던 용위도 또다시 깔깔대는 지원이푹에 할수없이 웃음을 짓다가 하는 말이 《문학선생님이 괜찮더라...다른 선생님들 같으면 가만있겠니? 교실마다 끌고다니며 망신을 졌을거야.》 하는것이였다.

《체, 그뿐인가 뭐? 아이들을 다루는건 또 어떻게, 육 한마디 안하구서두 너처럼 (이크!) 하게 만들지 않니.》

자기를 빤히 쳐다보며 새물새물 웃는것을 보던 용위가 또다시 주먹을 쳐들려고 하자 저만치 달아빠던 지원이가 중요한 말이라도 하려는듯 용위곁에 바짝 다가섰다.

《용위야, 너 우리 소조에 들어오려마. 선생님이 좋은데, 응?...야, 빨리 대답하려마, 영이— 답답하다야...》

지금껏 팔팔 뛰던 성격은 어디에 버렸는지 기가 죽은 용위의 말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선희는 저도 모르게 량미간이 찌프러졌다. 선생님들의 남모르는 수고가 그제야 조금이나마 헤아려지는것이였다.

《알락이 모르니?》

걸음을 다그쳐 용위와 비슷이 집문앞에 이르렀을 때 선희는 용위를 다그어했다.

《몰라요!》

용위의 모르쇠가 끝나기도 전에 알락이의 울음소리가 그의 책가방안에서 울려나왔다. 선희는 기가 딱 차서 다음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 새로 오신 우리 문학선생님 최고예요!》

판전을 부리던...동성서격이라더니...지청구를 미연에 방지하느라 수단을 부릴줄도 알구? 웃는 낮에 침을 못 뱉는다더니...

선희의 못마땅한 태도에는 아랑곳없이 용위는 발딱 제껴진 엄지손가락까지 추켜들며 제 흥에 떠있었다.

《오늘 문학시간에 새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글썽...》

《?!》

굴깃기에 취미가 있는 그가 문학선생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는것은 리해되지만 어떻게...

어리둥절한채 어이없어 용위를 바라보는 선희의

두눈이 점점 더 커가고있었다...

선생님이 칠판을 향하여 돌아선 틈에 미술시간에 생동하게 그리려고 가방속에 넣었던 고양이가 빠져나왔다.

《야옹, 야옹.》하며 청높은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교실안에 울려 퍼졌다.

《어마나? 이게 뭐야, 아이구, 깜짝이야...》

놀란 애는 두손을 가슴에 딱 모아붙인 분단위원장 양희였다.

하필이면 딱 거기 걸친 뒤편. 파벌같이 또 쏘겠는걸... 분단회의에서 사정없이 까는 《악발이》...

야멸차게 쏘아보는 그의 눈길을 피하여 선생님을 피뚝 쳐다보는데 선생님은 바로 자기를 향해 오시는 것이었다. 옆에 앉은 지원이가 키드득거리며 용위의 옆구리를 들썩서댔다. 후끈 달아올라 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꼭 내질렀더니 《아야야-》한다. 업살은 넌장...

수업시간은 판장판이 되었다. 이젠 뻘뻘했다. 한바탕 내려질 욕은 들썩었다. 사이체조시간에 영낙없이 고양이를 안고 전교앞에 설 생각을 하면...

톡톡...오늘따라 별로 심장의 박동이 드세웠다. 온 가슴안이 사정없이 풀떡거린다.

《10분후에...》

선생님의 목소리가 울렸다. 용위는 한껏 긴장해졌다.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기 주변의 생활에서 잘 찾아보도록 합시다.》

《?!》

이럴수가 있나?! 기다리던 욕비대신 나직하나 부드러운 목소리가 얼어든 그의 마음을 포근히 감쌀 줄이야...

안도감이 짜르르 온몸에 퍼져갔다. 살며시 머리를 들고 알락이를 찾아 여기저기 눈길을 주었으나 그토록 야무지게 울던 야옹이는 보이지 않고 가르릉 소리만 가락맞게 들려오고있었다. 알락이는 바로 선생님품에 안겨 단잠을 자고있었던 것이다...

《안경진 수학선생님은 유리장벽이 가리워져 있어 아이들의 마음을 문학선생님처럼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욕을 안하니 가슴은 더 뜨끔했어요.》

그날 저녁 밥상을 마주하고서도 제법 어른스레 자기를 돌이켜보는 아들을 처음보는 선희는 생판 모르는 아이가 눈앞에 있는듯 한 환각이 들 정도였다.

(내가 그걸 다...)

선희는 난생처음 안도감에 젖어드는듯 했다...

술한 선생들이 도리머리를 저은지 오랜 《못된》애를 몽클시켜 자기의 못된 장난을 스스로 뉘우치도록 하는걸 보면 확실히 그 선생이 아이들을 다루는 묘술이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어찌면 좋담... 한번 맡겨봐...

수학공부를 잘 시켜 텔레비존에 나오는 그 행복의 절정의 순간에 섰던 우주과학자들처럼 아들을 멋있게 키우자고 내외가 《엄숙》히 결정한 결의초

안은 잠시 정지상태에 들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천적인 취미도 그것을 담당한 교원에 따라 묵인될수 있다는것은 선희가 이미 지나온 학창시절을 통해 절실히 느낀 것이었다. 용위가 문학에 취미를 가지고있고 문학선생을 무척 따르는것도 요행이었다. 그가 학교에까지 재미를 붙이지 못하게 될것이 제일 큰 걱정거리였던 선희는 별다른 대책이 있을 때까지 당분간 현상유지만이라도 하자는 의도에서 문학소조에 다녔으면 하는 용위의 의향을 패히 수락하게 되었다.

3

《용위 어머니, 기뻐하십시오. 용위가 군적으로 3등을 했습니다.》

《3등이라니요?...》

《군글짓기경연에서 용위가 3등을 했던 말입니다.》

얼었던 몸도 순간에 녹일듯싶은 따스한 미소가 생글거리는 문학소조선생의 사진이 손전화기에 현시되었다. 그 모습을 녹여낼듯 바라보는 선희의 얼굴은 불통처럼 달아올랐다.

자식이 군경연에 참가하는것도 모르고있다니... 그런데 이 앤 왜 한마디도 없었을까. 어머니가 그렇게도 미덥지 못했단 말인가...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보게 하는 순간이었다. 혹심한 장난꾸러기여서 담임선생까지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애를 기꺼이 도맡아안은 문학선생에게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아이의 숙제장 한번 변변히 보아준적이 있었던가. 문학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수학숙제는 청해서 검열하면서도 수표해달라고 내미는 글짓기학습장엔 마지못해 《어머니 보았습니다.》라고 선생의 추궁이나 면하려고 대충 적어보내기만 했을뿐... 이렇게 며칠이 흐르자 아들에게서 더는 소조에 대한 이야기도 수표해달라고 책을 내미는 일도 없게 되었다. 결국 선희는 어머니의 자격을 체스스로 벗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어떻게 손전화기를 놓았는지...

얼굴 따가운 그 순간에도 기쁨의 파도가 넘실넘실 가슴에 흘러든다. 우리 용위가 군적으로 3등이라구? 소조생활 한달만에 그렇게 발전하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이만큼 자라도록 어머니로서 나는...

선희는 자꾸만 내려지는 자책의 회초리를 함박이 맞으며 오늘은 일찌감치 돌아올 아들에게 한상 푸짐히 차려줄 생각을 안고 퇴근길을 바삐 서둘렀다...

《어머니, 나예요. 용위예요. 빨리 마중나오세요.》

자정이 지나도 오지 않아 30분 거리인 학교에까지 갔다가 불 켜진데가 없어 소경 시집갔다오듯 한 선희는 남몰래 조용히 하는것 같은 용위의 전화를 받고 땀 흘린 자리를 일었다. 간단없이 락수물소리가 창문을 짜랑짜랑 울리고있었다. 용위의 비웃과 우산을 찾아온 선희는 휘뿌리는 비발속을 뚫고 달려 내려갔다. 기다림에 애를 말리던 선희는 집을 나섰

건만 정작 나서고보니 어디로 가야 할지 궁냥이 서지 않았다. 어디에서 오는 전화였을까.

선희는 손전화기를 다시 쳐다보았다. 통화기록에는 분명 눈에 선 유선전화번호가 찍혀져있었다. 혹시 동무네 집이?... 그렇다면 왜 몰래 다급하게 하는 걸가... 이 생각, 저 생각끝엔 어스크레한 불안의 그림자가 가득이나 애라는 가슴을 에워싼다. 다물리는 생각을 다독이며 그런대로 도로까진 나섰으나 이제 더는 그 어느쪽으로도 전진할수가 없었다. 선희의 바빠난 마음에 부채질하듯 솔금솔금 내리던 비발이 점차 굽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제일 믿음이 가는건 학교여서 선희는 학교쪽으로 미적지근한 걸음을 한발한발 옮기기 시작했다. 한 100미터가량 갔을가...

그런데 반대편 바로 웃쪽에서 전지불이 깜빡거렸다. 마치도 선희를 손저어 부르듯이... 혹시 하며 선희는 그 자리에 오탁하니 서서 귀를 강구고 서있었다. 분명 귀에 익은 억양을 알아들었던것이다. 주룩주룩 비소리에 실려오던 도란도란 말소리가 점점 가까와오자 선희의 입에서는 안도의 숨이 후-내블리었다.

여러명의 아이들의 말소리가운데서 요즈음엔 한결 더 명랑해진 아들의 목소리가 제일 높았다.

《선생님, 이젠 돌아가십시오. 여기서 우리 집이 보이지 않습니까?》

앞동네에 사는 지원이의 웅글진 목소리도 들려왔다.

《선생님, 우리 집에 들렀다가십시오.》

《어서 들어가요. 부모님들이 몹시 기다릴텐데... 동무들이 도경연에서 우승하는 날엔 내 꼭 그 성의를 마다하지 않겠어요. 어서 들어가란데...》

진정을 국자로 폭폭 떠서 아이들에게 안겨주는듯 싶은 현아선생의 말소리를 듣는 순간 어쩐지 (됐구나!) 하는 안도감이 선희의 가슴에 차분히 자리잡았다.

《안녕히 가십시오.》

혈연의 정도 무색케 할 그들의 뜨거운 배웅을 끝까지 지켜보고싶어 선희는 전지불을 끄고 비내리는 어둠속에 조용히 몸을 숨기고있었다.

다시 이어지는 목소리...

《자, 우리도 가자요.》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나와있을겁니다.》

《어디에서 언제 오는줄 알고 어머니가 기다려요? 비가 내리는데... 다른 소리말고 어서 가자요.》

《야참 선생님, 내가... 선생님 몰래 전화했습시다.》

《응? 언제?》

《선생님이 신발을 신으실적에...》

《요, 장난꾸러기...다시 그러면 안돼. 알겠지?...》

오손도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만 들어도 선희는 마음이 파스해졌다. 친형제라면 저렇게 뜨거울가...

그들이 자기의 앞을 지나칠 때에야 선희는 푹푹히 보았다. 어미뿔에 든 병아리같이 선생님의 품에 빠져들듯 안기어 걷는 용위의 머리우에만 씌워진 우산... 하늘을 통채로 기울인듯 한 비를 고스란히 다

맞으면서도 방패처럼 용위를 막아선 선생...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용위의 말소리뿐 선생은 대답 한마디 없다. 얼마나 떨릴가... 간단없이 내려지는 그 비를 다 맞으면서도 사정없이 밀려드는 오한을 짝 사려문 입술로 지지누르느라, 용위가 또 우산을 밀어낼가봐 대답 한마디 앓고있을 저 선생의 저렇듯 뜨거운 진정을 나는 왜 그리도 심히 모독하였던가...

그제야 선희는 깨달았다. 어째서 용위가 저 선생을 그리도 따르는지...

달려가 비웃을 씌워줄 생각도 달아오르는 심장에 모두 녹아버린듯 선희는 점도록 서있었다.

4

군잡에 든 용위를 팔에 베우고 별스레 굽고 윤택이 나는 그의 머리칼을 쓰다듬어주는 선희의 눈앞으로는 용위가 묘사이 쓴 일기의 글줄이 새 모습과 어울려 펼쳐지고있었다.

4월 10일 날씨 개입

...새로 오신 문학선생님의 《단수》가 보통이 아닌것 같다.

모든 아이들의 마음을 통채로 수업에 빠뜨려놓고 마음대로 글읽기, 글짓기, 지은글발표에 끌어들이는걸 봐도 그렇고 고양이문제를 처리하는걸 봐도 다른 선생님들과는 류다른 모습이다. 이 선생님앞에서는 순간이라도 허튼 생각을 할수가 없다. 보시는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아시는지... 아마도 선생님의 눈은 매눈인가봐... 선생님은 장난치는 아이들을 주시하시였다가 요긴한 대목에 가서는 꼭 물으시군 한다. 헛눈을 팔았는데 어떻게 대답할수가 있는가? 여자애들앞에서 선생님의 물음에 대답을 못할 때가 제일 부끄럽다. 녀자나 남자나 같은 생각인지 이 시간엔 선생님의 물음과 지명을 따라가며 서로 이기겠다고 조별경쟁에서 저저마다 청을 돌군다. 문학선생님은 수업 첫시간에 벌써 문학에 대한 남다른 취미를 꿰뚫어보시고 나를 과목책임자로 임명해주시였다. 추궁은 한마디도 없었는데 가슴은 왜 이렇게 두근거릴가. 선생님은 나의 의도를 모르실리 없겠는데 기분나빠하기는커녕 고양이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상식도 알려주시고 고양이를 가지고 글을 지을데 대한 과제도 주었다. 장본인인 나는 어떻게 짓는다?...

4월 27일 날씨 흐림

어머니는 내가 수학공부만 하길 바란다. 어머니의 안중엔 문학이 없다. 물론 아버지수님께 기뻐드릴 과학자가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은 리해되긴 하지만... 문학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 내 귀에 쑥 들어왔다.

《과학자가 되려고 해도 문학공부를 잘해야 한다. 문학공부를 잘해야 수학교 외국어도 잘할수 있고 사회활동도 잘할수 있다. 그것은 모든 학과목의

기초가 문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문학소조에 꼭 들어갈테다. 좋은 선생님에게서 문학공부부터 착실히 하여 견문부터 넓히고 보자.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이번만은 절대로 결심을 굽히지 않으련다.

4월 28일 날씨 흐렸다 개입

문학선생님이 나를 리해해주시고 소조에 받아주시려는데 어찌하여 어머니...

문학선생님은 나를 저버릴 선생님이 아니라는것을 어머니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도 소조생활을 잘해야지. 어머니의 처사에 무안을 당하신 선생님께서 어떻게 용서를 빌가...

5월 5일 날씨 맑음

...선생님은 부모님들에게서 받아오라는 수표를 내가 위조한줄 뻔히 아시면서도 꾸중 한마디 안하시였다. 선생님은 일이 바쁜 어머니를 곁잡게 여겨서는 안된다시며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대로 큰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6월 10일 날씨 맑음

도경연준비를 앞두고 퇴근후에는 선생님의 집에서 공부를 하군 한다. 선생님네 어머니도 선생님처럼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저녁밥도 먹이면서 공부를 시키신다. 쌀이 남아서인가?... 아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마음을 알고 경연에서 1등하길 바라서이다. 우리 어머니도 나쁜 어머니 아닌데...

6월 21일 날씨 비내림

선생님은 모임이 끝난 후면 꼭꼭 집까지 데려다주는것을 의무로 여기신다. 어머니들의 수고를 헤아려 마중나오라는 전화도 하지 말자는것을 우리들 자신이 약속하도록 하시며 약속은 곧 법이라고 그루를 박아놓으시였다. 어찌면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마음이 고운지...

선생님은 나의 거울이 되시여 나의 생활을 돌이켜보게 하신다. 우리 어머니 언체면 우리 선생님을 다 아실가...

눈에 띄우게 의젓해지는, 이제는 제법 어른스러워보이는 아들의 성장을 보며 선희는 지나치게 처신한 자신의 처사를 뺨칠하게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사랑하는 아들의 가슴에 멍울을 지어놓은 것이 뼈저리게 후회되였다.

(용위야, 내가... 잘못했다.)

잠결에도 아는듯 용위가 끄고 돌아누우며 선희를 그러안았다. 요람에 잠든 아기때처럼 선희는 아들을 꼭 그러안았다. 그리고는 아들의 귀에 대고 속삭이였다.

(도경연에선 꼭 1등을 하여라.)

...

선희는 옷을 든든히 걸치고 도로에 나섰다. 도

경연이 며칠 남지 않은것으로 하여 용위네는 자정이 가깝도록 공부를 하였다. 론쟁이 치렬해지면 새벽 한두시도 몰랐다. 정말 용위말따따나 시간을 모르는 애들인지...

모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이들을 기다려 어머니들이 밤을 새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문학선생의 조치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부모들에게도 절대로 마중나오거나 데리러 오는 현상이 없도록 단단히 강조했던것이다. 용위의 얄은 수도 이제는 바닥이 드러나고말았으니... 그 다음날부터 선희는 날마다 미리 선생네 집 담장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데리고오곤 하였던것이다. 그의 집이 제일 먼것으로 해서 따라서는 선생을 돌려세우는데서는 아주 명약이였다.

오늘도 선희는 날이 어둡기 바쁘게 집을 나섰다. 겨울날 불을 지피지 않은 난로라도 그결에 다가서야 마음이 개운한것처럼 매일 이렇게 해야 만사가 편한듯싶었다. 아이들의 문학의 키가 우썩우썩 자라는 소리가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듯 하는 그들의 소조모임을 칭취하는것이 이제는 그의 드바쁜 하루일과에서 떼어놓을수 없는 즐거운 시간으로 되였다. 굳적인 우승자들이 겨루는 도경연에서 현아 선생은 용위의 남다른 문학적재능이면 당당히 맞설수 있다고 확신한다는데 자기가 직접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가지 않았던것이다.

《호호호...》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왔다. 어제일을 생각하면...

다매체를 통한 학리론강의가 간단히 진행된 후에는 작품발표를 진행하군 하였다. 듣느라니 저마끔 발표하는데 용위의 목소리는 어째선지 나지 않았다. 여자애, 남자애 순서없이 발표하건만...

선희의 마음을 풀어주려듯 선생이 용위의 편을 들어주였다.

《용위학생은 멋있는 시를 창작하고있어요.》

한참후에야 맨 끝찌인듯 용위의 발표가 시작되였다.

용위는 자기의 글에서 선생님의 할머니가 가꾸는 선인장은 날창가시 비껴들고 자기를 노려본다는것, 그 선인장을 볼 때마다 공부잘할 생각이 넘쳐난다고 노래했다.

선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공부를 잘 못한다고 할 땐 못 들은척 하던 애가 이렇게 달라질수 있나...

신비스러워진 마음에 부채질은 더해졌다.

용위는 또한 자기의 글에서 기울어진 자기의 글씨가 정말 땀다고 아빠, 엄마 욕을 할 땐 들은척도 안하다가 그만하면 잘 썼다고 칭찬해주는 선생님앞에선 얼굴붉히며 글씨를 더잘 쓸 결심을 노래했다.

그래서였구나. 아무리 굵게 쓰라고 별별 수단을 다 썼어도 들을넘 았더니... 글씨가 고와졌다고 기뻐만 했지 이것이 선생님의 고심참담한 노력의 산물인줄 꿈에도 생각지 않던 선희였다. 자기의 행동

에 대해선 그 누구의 말도 효력이 없던 아들이 선생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도 자기의 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것을 보면 확실히 현아선생에게는 옛말에 나오는 오솔막대기 같은 것이 있는것 같았다. 부모들도 못 다스린 고약한 뺨통머리가 그의 손에서는 잘 길들여진 룡마처럼 되니... 그 묘리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에 잠겨 걸느라니 어느새 선생님의 집에 다달았다.

퇴근후에 현아선생은 소조아이들의 편의를 위해 그들을 자기 집에 데려오는것을 철칙으로 여기고 있었다. 근처에 이르니 도란도란 말소리가 류창하게 울려나왔다. 글짓기발표가 시작된 모양이었다. 우리 용위가 오늘은 또 어떤 글을 지었을까. 선희는 말소리가 잘 들리는데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언제 들어도 마음이 파스해지는 현아선생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었다.

《...윤동향선생님이 지은 시 〈꽃다발〉이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 아이들이 저저마다 청을 돌군다.

《 그럼 우리 다같이 한번 읊어보지요. 》

...

나도 얼른 자라서 저 형님처럼
금별메달 번쩍번쩍 돌아올 때면
귀엽둥이 동생들 모두 달려와
아름다운 꽃다발 안겨주겠지

《 무엇이 좋습니까? 》

아이들의 짜랑짜랑한 랑송이 끝나자 선생님의 물음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짜짜그르 박수갈채가 일어났다. 누가 일어난 모양이었다. 며칠째 이런 걸음을 하다나니 선희는 선생에 대하여 어지간히 파악할수 있었다. 제일먼저 발표하려고 일어서는 아이들에게 먼저 박수부터 안겨주도록 한다. 발표를 잘하면 선생부터 너무 기뻐서 어쩔줄을 모른다. 그 애의 머리도 쓸어주고 등도 토닥토닥 두드려주면서 큰 박수도 쳐준다. 대답이 미숙할 때면 잘된 점을 살려주어 아이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면서 수정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곤 한다. 그래 그런지 대조장이라면 얼굴부터 붉히며 쥐구멍도 찾아들것 같던 아이들이 이제 저저마다 먼저 발표하겠다고 싱깅이가 말이 아니라 언젠가 용위가 말한적이 있었다. 하여튼 선희 보기에 소조생들가운데 《쪽정이》는 없는듯 했다.

한 아이의 발표가 끝났는지 아이들의 평가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옳다거니 그르다느니... 남자에, 너자애들이 편을 가른 론쟁에 불이 달렸다. 선희도 론쟁에 말려들어 맞아, 아니야 하며 평가를 했다. 불뛵은 창가에 막 다가들고싶은 충동을 애써 누르며 선희는 귀를 바짝 강구었다. 시간을 타고서 고조를 이루는 론쟁의 불길은 과연 언제 꺼지겠는지?

한동안 열에 뒹던 론쟁은 승부가 묘연해지자 선생의 결론을 받는데로 지향되었다. 이럴 때엔 선생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다 파악한 선희였다.

《 이 동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

선생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아이들의 짜랑짜랑한 대답소리가 창문가에 울려퍼졌다.

《 〈내〉가 영웅이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

《 그럼 어느 구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

그렇게도 쟁쟁하던 목소리들이 모두 갑자기 입이

얼어붙은듯 잠잠하다. 선희도 긴장해졌다. 한참후
에야 울려나오는 대답소리...

(우리 용위로구나....)

《나도 얼른 자라서 금별메달 번쩍이며 돌아올
때 귀염둥이 동생들이 모두 달려나와서 꽃다발을
안겨줄것이라고 노래하는데서 알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웅이 되겠다고 했는가요?...》

《아닙니다.》

《바로 〈나〉는 영웅이 되겠다고 하지 않고도
(금별메달 번쩍번쩍 돌아올 때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내〉가 영웅이 되겠다고 한다는것을 독자들
이 알수 있게 한것이 이 동시의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풍겨오는 향기만 맡고도 어떤 과
일인지 알수 있는것처럼 시도 이것이다 하지 않아도
형상을 통해 의도가 안겨오게 써야 합니다.》

들을수록 재미있었다. 이제는 오늘 지은 작품을
발표하는 모양이구나...

선희는 숨소리마저 소란스럽게 여겨졌다.

용위와 한학급인듯 한 한 녀자애는 《엉뚱한 아
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용위는 이제 모범학생이
되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간다고 우겨대는
아이라고 했고 또 어떤 애는 자기들도 찾지 못하
는 결함을 순간에 꼭꼭 집어내는 선생님의 눈은
보배눈이란다. 지원인 선생님이 제정해준 낮잠시
간에 꼬꼬만 예방이가 자는척 하면서 오빠, 언니
들을 잠재워놓고는 동시 1편을 지어 그날 총화에
서 1등 하었다고 하면서 다시는 낮잠을 자지 않고
큰 오빠답게 1등하겠단다. 공부를 게을리하면 오빠
도 동생되고 공부를 잘하면 동생도 만수이가 된다
고 하면서...

어떤 앤 자기들이 갈적마다 멍멍 짖어대는 선생
님의 집 강아지가 이제 1등 했을 때 노래를 불러주
려고 발성편습한댄다. 그런데 다른 애들은 자리다
툭하듯 연해연방 울어대는데 우리 용위...

선희는 괜히 등이 달아올라 벌떡 일어났으나 불
빛이 유유히 흘러나오는 창가만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잘하긴 뭐가 잘해, 저 정도 가지고 도경연엔 어
떻게 참가한담?...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지청구를 들은듯싶게 용위
의 랑랑한 목소리가 밝은 창가에서 울려나왔다.

렬차야 날아주렴

소년단벚라이 곱게 매고서
원수님 계시는 평양으로 가는 길
왜 이리 더딜가요 우릴 실은 특별렬차
렬차보다 마음이 먼저 달려설가요

렬차야 너도 알지 안타까운 우리 맘
딱 한번만 저 하늘 훨훨 날아주렴
어서어서 원수님품에 안기고픈 우리 맘
날개삼고 썩썩 저 하늘 날자꾸나

《야!—》 짹짹그르 요란한 박수소리가 터져나왔
다. 우리 아들이 제일이다! 알을 날바에야 메추리
알이 아니라 타조알을 낳아야지...

선희는 오늘에야 자식을 둔 보람을 느껴보는듯
싶다. 선생님네 식구들까지 안겨주는 절찬이 달밖
은 마당가에 한동안이나 빙그르르 떠돌았다. 언젠
가는 이루어질 용위의 아름다운 꿈인양 반짝이는
저 하늘의 별들이 선희를 동동 떠돌리는데싶다.

5

그로부터 며칠후... 도글짓기경연이 진행되었다.
경연결과를 기다리는 선희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
지없었다. 여느때 같으면 따르릉-전화라도 왔을
테지만 밤이 어지간히 깊었어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걸 봐선 분명...

애아버지도 벌써 몇번째 용위의 경연소식을 몰
어왔다. 연구소실장인 남편도 연구사들과의 사업을
통해 문학의 중요성을 깨달은적이 있는지라 용위
의 결심을 적극 지지하였던것이다. 이젠 선희쪽에
서 급해나기 시작했다.

이때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용위냐?》

언제 대답을 기다릴 새가 있나... 선희는 대문
을 향해 마주 달려갔다. 그런데... 한무리의 아이들
과 어른들 몇이 벌써 대문을 지나 선희앞에 거의
다가섰다. 맨앞의 사람은 몹시도 키가 크기도 했
다. 구척이 아니라 십척장신도 되겠다. 한마디 말
도 없이 다가서는 모습들이 마치도 싸움을 걸어오
는 자세였다.

《누구예요?...》

긴장해졌다. 이때 앞에 섰던 《격다리》가 선희
의 바로 코앞에서 푹 꼬꾸라졌다. 속이 철렁 내려
앉는것 같았으나 어디까지나 주인인데야...

비장한 각오를 가지는 순간 《용위!》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 《축하합니다!》하는 또랑또
랑한 목소리들이 성날번 한 선희의 마음에 얼마간
의 안도감을 가져다주는데 이번엔 꼬꾸라진 《격다
리》의 상반신이 선희의 앞으로 옥-달려들어 선희
의 품에 안겼다.

《이 장난꾸러기같은 자식...》

《격다리》의 웃뎀이 용위였다. 지원이의 목마를
땀던것이다. 묻지 않고도 선희는 알아차렸다. 우리
용위가 1등 했다는것을!

...문학소조가 생긴이래 처음있는 이 경사를 그저
넘길수 없는 소조아이들과 부모들의 축하인사가 끝
난 후 선희는 현아선생과 마주앉았다. 선생은 그
저 용위 자랑뿐이었다. 지금도 그는 오늘 있는 일을
자랑삼아 이야기하고있다. 남들은 조바심을 가지고
경연결과를 기다리건만 배포유하게 밀짚먹으러 갔
했다는것, 녀동무들을 생각지 않고 혼자 먹었다고
말하기 전에 밀짚이 든 구력을 내놓더라는것, 식당
에서 점심식사를 하고나선 동무들에게 선생님자랑
을 넓다 하더니 어른들처럼 의견함에 글까지 척 남

겨 사람들의 선망의 눈길을 받았다는등...

선희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이윽도록 선생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자기 자식 사랑하듯 할가?...

선희는 지금껏 품고있던 생각을 드디어 터쳐놓았다.

《선생님은 어떻게 우리 용위를 서슴없이 말아안게 되었습니까? 우리 애야 여느 애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위를 집에 데리고 온 그날부터 현아선생에게 품어온, 꼭 한번은 그에게 묻고싶었던 말이였다.

《그건 바로 우리 용위가 남다른 문학적재능을 가지고있기때문입니다. 저야 문학교원이 아닙니까. 호호호...》

현아선생의 얼굴에 발그스레한 함박꽃이 활짝 피었다. 바로 그때 곁에 담쭉 안길듯이 바싹 다가앉은 용위를 한팔로 다정히 그러안은 그의 모습은 어머니인 자신도 누가 어머니인지 삭갈릴 정도였다.

《사실 우리 교원들에게야 잘나고 못난 학생이 따로 있겠습니까. 일단 당에서 맡겨주었으면 우리는 그들을 나라의 대들보로 끝까지 말아키울 의무만 있을뿐이지 장난꾸러기, 말썽군이라고 내버릴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 교원들은 눈에 잘 띄우지 않는 학생들의 미세한 소질도 놓치지 않고 제때에 빠짐없이 찾아내는 현미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육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저 나라를 떠받들고나갈 인재를 더 많이 키워낼데 대한 어머니 우리 당의 위대한 사상을 쫓피우기 위해 노력했을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용위같은 <장난군> 들을 교원들의 예리한 초점에 박아넣으면 반드시 당에서 바라는 훌륭한 인재로 키워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여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전 언제나 잊을수 없어요. 12년제의무교육의 정당성을 만방에 과시하여야 할 우리 교원들의 눈은 현미경이 되어야 하겠지 만 전 아직... 용위의 수학공부는 제가 맡아 시키겠습니다. 수학선생도 적극 돕겠다고 했습니다. 문학교도 수학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더 잘할수 있다는것

은 지나온 경험이 잘 말해주고있답니다.》

현아선생은 조용히 이야기하고있었다. 그러나 선희에게 짹 짹 드세찬 함마소리같이 귀안을 울리고있었다. 선희는 생각이 깊어졌다. 교원들의 깊은 그 마음도 모르고 고깝게만 생각했으니... 자기는 아들이 버럭돌이 될가봐 걱정만 하고있을 때 선생님들은... 장난에 가리워 영영 빛을 보지 못할번 했던 아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던, 어머니인 자신으로서 전혀 느낄수조차 없었던 바늘끝같은 소질을 찾아 어엿한 문학동으로 키워주는 현아선생같은 교육자들이 있기에 우리 부모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맡기는것이 아니라...

거기서 용위같은 《버럭돌》이 《고품위광석》으로 온 도에 등등 떠받들리우고...

선희는 친형제와도 같이 잘 어울리는 현아선생의 모습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땄줄 몰랐다. 정말 쉽지 않은 선생이었다. 사랑으로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으로 그들의 재능을 활짝 꽃피워주는 이런 훌륭한 교육자들을 키워 보내준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이 절로 흘러나왔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토록 가슴씩이던 아들의 장래가 이제는 드넓게 뻗어간 도로같이 환히 열릴것이다.

선희는 오늘따라 별로 대견해보이는 아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마당에서는 동무들이 용위를 목마에 태우고 빙빙 돌며 온 동네가 떠나갈듯 벽작 끊는다. 집집마다 놀란 개들이 경경 짖어대는 소리가 합세하여 온 풀안을 들었다놓는다. 뒤이어 부엌문들이 열리는 소리가 가락맞게 들려오더니 부러움이 한껏 실린 녀인들의 눈길이 용위네 집뜨락을 바라본다. 아들을 이윽도록 바라보는 선희의 두눈가에 수정같은 맑은 눈물이 소리없이 모여든다.

(용위야,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몸과 마음에 다 담아시고 푸르른 저 하늘높이 재능의 나래를 더 활짝 펼쳐라!)

(전천군 진평고급중학교 교원)